

국산 형광염료 품질저하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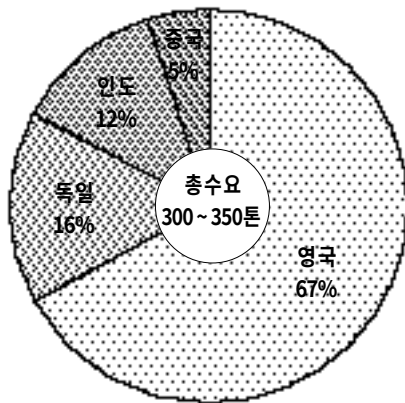
중국·인도산 저가 DAS 수입급증 ... 합성·증백 효과 떨어져

최근 형광염료 중간체인 DAS(4-4 Diamino-Steelben-2,2 Disulphonic Acid)의 중국·인도산 수입이 급증, 국내 형광염료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전량 수입되고 있는 DAS는 그동안 영국 Hickson, 독일 Bayer 양사로부터 수요의 90% 이상이 공급되어 왔으나, 90년 전반기를 기점으로 국내 형광염료 업체들이 저가의 중국·인도산 DAS를 대량 구입·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산화성분은 지난해부터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영국·독일산 DAS 물량을 15~20%로 줄이고, 대신 인도·중국산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국내 DAS 시장점유율(1991년)



이외 국내 소규모 형광염료 업체들도 염료제조시 인도·중국산 DAS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같이 관련업체들이 낮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중국산 DAS를 선호하는 것은 영국 Hickson으로부터 수입되는 DAS가격이 kg당 8200원(입고가격 기준), 독일제품이 8000원인 반면 인도·중국제품은 kg당 6000원에 불과, 원가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중국산 DAS는 염료생산시 합성과정이 용이하지 않고, 반응시 붉은 계통으로 착색, 증백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광염료 업체들은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산업 경기가 악화, 수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고품질의 형광염료 시장은 일본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어, 고가의 영국·독일산 원료 사용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 인도·중국산 수입물량을 계속 늘릴 방침이다.

업체별 DAS 사용량(월평균)은 삼원산업 8.5톤, 경인합성 5톤, 이화산업 3톤, 오영산업 0.5톤, 범진산업 4톤, 삼산화성 5톤, 천미사 3톤 등 총 29톤이며, 연간 350여톤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5/15>